

## “지역 핵심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실행 총력”

### 시·도 민선 8기 3년 기자회견

姜 “군공항 이전·복합쇼핑몰 시동”  
AI·돌봄·교통 등 성과 창출에 집중  
金 “국립의대·COP33 유치에 전력”  
신재생에너지 신성장 사업 본격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민선 8기 마지막 1년을 ‘성과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지역 핵심 현안들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주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인공지능, 돌봄, 교통 대책 등 시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은 위기 극복의 내공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다”며 “군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인공지능, 돌봄, 교통 대책 등 시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전남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실 산하에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과 함께하는 ‘6자 협의 TF 구성이 공식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을 건의해왔다”며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에 나서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무안군 간 신뢰 회복을 위해 1조 원 규모 지원 계획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송 문제로 국방부와 무안군이 협의해서 실증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쇼핑몰 착공과 후속 교통 대책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위한 AI 2단계 사업 추진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통합돌봄 확대·돌봄통합지원법 정착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통해 광주가 기업, 인재, 데이터가 집적된 ‘AI 국가 대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울산·전남 등에 들어서는 민간 데이터센터와 달리 광주의 AI센터는 공공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의 규제프리존 지정과 실증 테스트베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AI 돌봄, 복합쇼핑몰, 군 공항 이전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민선 8기 출범 3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발맞춰 지역 핵심 현안들을 국가 전략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제 전남의 준비된 과제들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려 실행력을 확보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2028 COP33 여수 유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권 특별법 제정’ 등 전남의 핵심 현안들을 새 정부 국정 아젠다에 반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전남의 국정입안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시기”라며 “실행력 있는 정부 연계로 전남의 전략과제를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기간 민생 중심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피해기업, 석유화학·철강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조 3000억원 규모 발행 등 체감형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5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은 이미 집행 단계에 돌입했다. 공공투자 확대도 병행된다.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2027억원 규모의 SOC 예산은 하반기부터 착공이 이어진다. **▶ 2면에 계속**

▶ 관련기사 3면 김성수·정성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李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추경 조속 집행 필요”

### 취임 첫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경제회복 최소한 조치” 협조 당부  
“공정성장으로 양극화·불평등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탈출의 첫 단계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제 악화 요인이 된 대내외 변수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원,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원 등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

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공정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 경정에 대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서울=김선욱 기자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b>동남아시아</b>	ONE MART
<b>유럽</b>	Sunrise Supermarket K-Shop
<b>미주</b>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b>호주</b>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온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하비는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하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